

2. ISS, Exxon Mobil의 임원보수안 반대 권고 (Responsible Investor¹⁷⁾, 2013. 05)

- 글로벌 의안분석기관인 ISS는 美 석유화학회사 Exxon Mobil 주주들에게 Exxon Mobil의 임원보수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함
 - ISS는 지난 3년간 Exxon Mobil 총주주이익률(Total Shareholder Return, TSR)이 타기업보다 저조한 점과 실질적으로 임원보수가 이들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음을 반대 사유로 꼽음
 - ISS는 지난 2010년 Exxon Mobil의 Rex Tillerson 최고경영자는 2,900만달러의 보수를 받았으며 이는 비교집단(peer group) 기업들의 최고경영자 평균보수인 2,270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이라고 주장함
 - 또한, Exxon Mobil이 보너스와 장기인센티브 금액 책정을 위한 정교한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원보수와 성과사이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함
 - 임원보수안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 Exxon Mobil이 미국의 석유개발업체 XTO Energy를 250억달러에 매입한 것을 들 수 있음
 - ISS는 현재 천연가스 사업이 침체되어 있고 전망도 밝지 않아 Exxon Mobil이 XTO Energy를 무리하게 인수한 것을 우려함

- 오는 5월29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Exxon Mobil은 ISS권고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
 - 특히, ISS가 장기적 성과보다는 단기적 성과를 바탕으로 총주주이익률을 도출해내는 등 ISS의 방법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함
 - 즉, 보통 한 기업의 사업계획은 10년을 주기로 하고 있는데 비해, ISS는 총주주이익률 계산시 1~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총주주이익률이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임
 - 현재 Exxon Mobil은 임원보수가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

17) ISS Urges Exxon Shareholders To Vote Against Executive Pay Plan, ADVFN